도요보 - 기술지도 등으로 해외의 전용생산라인 확대

도요보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합판회사에서 전용(專用)생산라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방직가공합판공장인 “유니론”은 도요보가 약 33% 출자하고 있어, 월간 25만미터의 전용생산라인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2003년)에는 이 전용라인을 50만미터로 배가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도요보의 전속(專屬)합판 방직공장으로서 80%를 투자한 TTM의 시설을 증설하고, 방직합판으로 60%를 투자한 “패락”에 확보되어 있는 전용생산라인도 확대함으로써, 이들 두 공장에 위탁하는 편포의 생산규모를 현재의 월간 60만미터에서 2003년 내에 50% 증가한 90만미터로 늘리게 될 것이다.

도요보는 일본에 6개의 면관련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6월말로 3개 공장을 폐쇄하여 “이나미(井波)”방적공장과 “뉴젠(入善)”방적공장의 2개 공장과 “쇼가와(庄川)”직포가공공장의 3개 공장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내 공장의 직물 생산량은 월 120만미터에서 90만미터로 25% 감소되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해외 합판공장으로의 위탁생산을 현재 110만미터에서 160만미터로 50만미터를 늘려, 총체적으로는 20만미터를 증산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도요보는 해외에 갖고 있는 합판공장들 중에서 말레이시아의 TTM에서만 생산품의 판매권을 갖고 있을 뿐이고, 기타 공장들에 대하여는 생산품의 판매권을 갖고 있지 않아, 해외 위탁생산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아왔었다. 그런데 중국의 합판공장들이 이제까지의 상품만을 생산하고 있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요보는 합판공장에 도요보 전용생산라인을 더 많이 만들어, 이 라인의 제품을 원가를 약간 웃돌 정도의 싼 가격으로 도요보가 인수하는 대신에, 전용라인 외의 라인에도 합판공장이 원하는 기술을 제공해 주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인도네시아의 “유니론” 공장과 말레이시아의 “패락”공장에도 알려지면서 도요보의 전용라인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유니론”공장의 도요보 전용생산라인에서는 월 50만미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용량의 3분의 2는 셔츠감을 생산하고, 3분의 1은 유니폼감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유니폼감은 병원용 흰색가운 등인데, 앞으로는 작업용 유니폼감의 상업생산도 추진하기 위하여, 염색의 컬러 · 매칭(color matching)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도요보는 유니론의 도요보 전용라인을 더욱 확대하여, 2005년에는 월 100만미터 규모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TTM과 패락공장에서도 도요보 전용라인의 생산능력이 월 90만미터로 확대된다. 이 중에서 25만미터는 침장품용이고, 15만미터는 중동지방의 아랍 민족 고유의 긴 옷인 “도브(Tobe)”용이고, 10만미터는 셔츠용 편포로 생산하고, 나머지 40만미터는 주머니용 손수건 등 기타용의 편포로 생산된다. 이들 편포의 가공은 일본에서 담당하게 된다.